

이낙연, 종로출마 수락...黃과 빅매치 여부에 "신사적 경쟁 기대"(종합)

기사입력 2020-01-23 11:46 최종수정 2020-01-23 16:41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받아들여..."엄숙하게 받아들인다"

"영광스러운 책임...정쟁 삼가며 겸손·성실하게 선거 임할 것"

"가능한 최대한 의석 얻어야...많이 승복하는 공천 이뤄지길"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이낙연(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날 서울 종로 출마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을 공식 수락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당연히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이 대표와 함께 총선 '투톱 체제'를 구성하게 됐다.

4·15 총선 서울 종로구 빅매치 전망



이낙연 1952.12

전남 영광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2005~2006년 민주당 원내대표
2014~2017년 전남도지사
2017~2020년 제45대 국무총리
16·17·18·19대 국회의원

출마 결정



황교안 1957.4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

2013~2015년 법무부 장관
2015~2017년 제44대 국무총리
2016~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2019년 자유한국당 대표최고위원

출마 예상



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020012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YONHAP NEWS

이 전 총리는 이날 용산역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귀성인사를 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우리의 역사와 열이 응축돼 숨 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며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책임"이라며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드리는 저급한 정쟁을 삼가겠다"며 "신뢰와 품격을 유지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꾸지람과 가르침을 늘 겸허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 표출된 국민 요구를 이행해가는 숙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출범했다"며 "이번 선거는 이 과제 이행을 앞당길 것인가, 지체되게 할 것인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종로 출마 결심의 배경을 질문받자 "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숙고한 끝에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대위원장·종로 출마' 입장 밝히는 이낙연 전 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농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출마제안 수락을 밝히고 있다. kimsdoo@yna.co.kr

종로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맞붙는 '빅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 당의 결정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제 개인의 마음을 말하자면, 신사적 경쟁을 펼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에 나서야 하는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역구 선거운동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물음에 "선거 상황에 따라 최선의 지혜를 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거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을 나눈 적이 없으나, 가능한 최대한의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 지역구 전임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련해선 "현직 총리와 선거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임명동의안 의결 직후 축하전화를 드리고 '제가 종로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리 신고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이 전 총리는 "당내 경선과 공천과정이 얼마나 순탄하냐가 선거 초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준다"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공천은 없으나, 규칙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많이 승복하는 공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한 논란에 대해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며 "권력 집행은 국민 인권과 기본권의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귀성인사 장소에서 장애인단체가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표의 장애인 관련 발언을 두고 비판한 것과 관련, 이 전 총리는 "본인이 여러차례 사과드렸고, 저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누구든 국민의 아픔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콜센터 찾은 이낙연 전 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4·15 총선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농협 고객행복센터를 방문, 콜센터 업무현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kimsdoo@yna.co.kr

이 전 총리는 이날 귀성인사에 앞서 용산구의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를 방문해 콜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근무환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전 총리는 설 연휴 첫날인 24일 지역구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등 총선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dk@yna.co.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

▶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 뭐 하고 놀까? #흥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354542>
